무주군도 11호선 덕지 · 삼거 터널 주변 건설 폐기물 · 쓰레기 불법 투기

무주찾는 관광객들 '눈살'

환경오염 · 교통사고 위험 노출… "관계당국 단속 나서야"

세계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무주군도11호선 덕지·삼거 터널 주변에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행정부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주군도 11호선 덕지·삼거 터널 500여 미터전방에는 건설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와 폐 타이어, 폐 건축자재, 잡종쓰레기 등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어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계곡의 수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덕지·삼거터널에서 약300여 미터 떨어진 샤또무주공장 입구에 건설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100여 톤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어 와인 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덕지·삼거 터널 입구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미끄럼 방지시설도막포장을 했으나 포장도로에서 레미콘차량이 콘크리트를 마구 흘려놓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지 않아 미관뿐만 아니라 미끄럼을 방지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김 모씨는 "무주군민 모두 6월에 실시되는 세계태권도대회를 통해 청정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에 먹칠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 모(무주읍)씨는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방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무주를 방문하는 세계태권도 인들에게 무주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단속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코레일 전북본부

철도관광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완주군이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완주군과 코레일 전북본부는 16일 완주군청에서 박성일 군수와 장영철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완주군과 코레일은 국내 각 지역을 출발, 삼례역에 도착한 뒤 완주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완주군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 전북본부는 전국에 있는 코레일 여행상담센터를 통해 완주군의 관광자원 홍보 및 철도 관광상품 기획과 열차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철도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16일과 17일 2일간 코레일 여행상담센터 및 철도여행사 직원을 초청해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 테마박물관, 송광사 등 완주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군은 천혜의 청정 자연관광 뿐만 아니라 체험형 농촌마을관광, 박물관·미술관 문화산책, 휴양림·편백숲·수목원 힐링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공동마케팅을 통해 철도관광객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앞으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관광객유치 ▲맞춤형 수학여행 실시 ▲시티투어운영 등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활동 전개

박성일 군수, 공무원 60여명 함께 중앙부처 방문

박성일 완주군수가 2018년 국가예산 3000억 시대 개막을 위해 완주군 공무원 60여명과 함께 중앙부처 집중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은 16일 '중앙부처 일제출장의 날'로 추진하면서 박성일 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 간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총동원돼 세종시, 서울시, 대전시 등에 위치한 21개 중앙부처를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박 군수는 세종시 부처를 직접 방문해 군정 핵심사업인 화산~운주간 국도 17호선 시설량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신규사업인 만경강 수난체험센터, 사회적경제 전문교육원 유치, 농식품통합관리지원센터 등의 확보활동을 진두 지휘했다.

또한 환경부 소관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간부와 담당과장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내년 부처 예산편성에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군 간부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소관 부처를 찾아다니며 관광자원개발사업, 구)만경강 철교 활용사업, 위봉산성 관광자원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소하천 정비 등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을 펼쳤다. 현재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차에 걸친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통해 2018년 신규 국비사업 126건, 총 국비 6485억을 발굴했다.

지난 2월 한발 앞서 중앙부처 집중 방문활동을 실시한 뒤 부처 예산편성 단계 중점 관리사업 59건(총 국비 5507억원)을 선정했다.

군은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집중 방문활동을 부처별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시점인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진안시장이 중기청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1시장 1특화」하고 자생력 기반을 갖춘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시장 당 최대 6억원이다.

골목형시장 현지평가 시, 관내 농?특산물의 시장 내 유통확대를 위해 진안군이 추진해 온 고향할머니장터와 진안고원 주말시장 그리고 시장상인회의 자체 활성화 노력 등이 많은 점수를 받아 골목형시장 최종선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첫째,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쉼터 등을 설치하고, 둘째, 마이산과 진안시장을 잇는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신규고객 유치를 목표로 내년 3월까지 식당가 흑돼지 특화골목 조성, 상품진열 개선, 주말시장(야시장) 인프라 구축, 읍내 체험길 조성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골목형시장 사업과 별개로 군민 주차편의 향상과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학천지구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시장기능 통합을 통한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추시장 이전운영도 검토 중이다.

/진안=우태만기자

구천동터널 하행선 구간 교통사고예방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교통관리계장 김덕상은 지난 15일 구천동터널 하행선 구간에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하고자 무주군청, 도로관리공단, 전북도로관리사업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는 49번 지방도 구천동터널 하행선 구간에서 최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개최 하였으며 급커브가 많고 내리막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구간이라 교통시설물 뿐 아니라 도로선형개선 및 과속카메라 설치 등 폭넓은 항목들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그 중 구천동터널 진입구간부터 하조사거리까지의 구간 과속카메라 설치와 운전자들에게 소리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횡적 그루빙 설치, 텔리네이터 설치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러 효과적인 대책들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장수군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 운영위원회의를 지난 15일 연계기관 운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6년 장수군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2017년도 CYS-Net 사업 안내,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논의,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안내 및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회의참석자들은 위기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법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방법에 대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청소년문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홍삼축제 · 군민의날 체육대회 10월 19일~22일까지 개최

진안군은 16일 올해 진안홍삼축제 기간을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변경해 마이산북부 마이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총회를 열고 축제 개최일정을 논의하였으며, 진안군체육회에서 한 달여간 군민의 의견수렴을 한 후 매년 10월 12일에 열리는 '진안군민의 날 및 체육대회 일정'을 올해는 10월 19일부터 홍삼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관광객 15만명이 다녀가 경제효과 75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2017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축제프로그램' 분야 특별상을 받는 등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진안홍삼축제는 전국 유일의 홍삼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도록 올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진안군은 16일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16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 중점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부군수실에서 열었다.

지난 2월 수립한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실·과·소에서 시행 중인 인구 늘리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던 인구 늘리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 빈용기 보증금 반환실태 점검

장수군은 관내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반환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5부터 오는 24일까지 10일간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를 중점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장수=고판호기자